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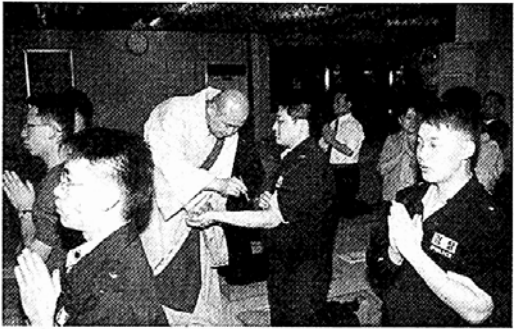
석불선양회 어서리 미륵불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7일 이전 장호원을 어서리 마을에 있는 석조미륵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107호)을 찾아 석불친견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석불선양회는 미륵불 주위를 청소하며 향축을 밝히는 마을 주민 박종길 씨에게 초 100자루를 보시했다. 동참자들이 미륵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올리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불교회 수계법회

부산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고행섭)는 8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여여선원장 정영수님이 계사로 나선 이날 수계식에서 동참자들은 부처님법을 진실로 믿는 불제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정영수님이 호쾌함을 한 불자에게 연비하고 있다.



서울은 불교행우회 '마음' 법회

서울은 불교행우회(회장 권태중)는 11일 본점 도서열람실에서 '마음'을 주제로 혜덕법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2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참가해 불교행우회의 대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참자들이 혜덕법사(가운데)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노숙자에 무료투약 봉사

불자약사보리회, 서울역 광장에 진료소

매주 월·화요일 이틀...1년간 계속 인도주의실천 의사협과 공동 진행



◇불자약사보리회 유효순(왼쪽) 부회장이 노숙자에게 약이 담긴 봉투를 건네고 있다.

8일 서울역 광장 모퉁이 10평이 채 되지 않은 노숙자 쉼터에서 허름한 복장을 한 노숙자가 하얀 약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의 손에 쥐어진 봉투에 쓰여진 '날마다 좋은 날 되게 하시고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우사서'. 불자약사보리회(회장 장준수)가 자비의 불심을 담아 인술을 베푼 봉투였다.

불자약사보리회는 8일 서울역 광장 노숙자 쉼터에서 진료소 개소식을 갖

고 진행되며, 모든 노숙자가 재환의 길을 걸을 때까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역 노숙자 무료투약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이 단독으로 진료와 투약을 실시해 왔으나, 불자약사보리회가 불교계를 대표해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98년 외환 위기 이후 노숙자 진료에는 5개의 기독교계 병원과 단체가 참여해 왔으며, 불교계의 노숙자 진료 참여는 최근 선재마을의료회와 봉은사에 이어 불자약사보리회도 이에 가세한 것.

불자약사보리회만의 이번 무료투약은 탑골공원과 을지로 지하보도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되는 봉사활동이다. 연인원 6만명이 수혜를 입는 탑골공원의 노인 무료투약은 현재도 매월 둘째주 일요일 진행되고 있다.

유효순 부회장은 "인간방생이 방생 중에 제일가는 방생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활동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안타깝다"며 "불교의 동체대비사상과 자비사상을 몸으로 실천해 불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291-01-008-821 (예금주 김미경 재부)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환경부 불자회 30일 창립

서울 구룡사서, 초대회장에 정연만 과장

공무원 불자회 창립이 활발한 가운데 과천시에서 있는 환경부에서도 불자회가 창립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 불자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창립총회 및 법회를 봉행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환경부 불자회 창립은 정부 과천

청사내 불자회가 구성되지 않은 재정경제부, 신업자원부, 노동부 등의 불자들에게 불자회를 창립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환경부의 불자회 창립도 보건복지부, 농림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과천 정부청사 불자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



"환경부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법한 불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역점을 두고 불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환경부 불자회 창립에 앞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정연만 총무과장은 조직적인 불자회로 키워나갈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 확대와 회원간 화합을

"성장기반 다지는데 역점"

정연만 초대회장

도모할 계획이다.

환경부내 타종교 신우회 활동을 지켜봐 왔다는 정연만 회장은 "환경부내에도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점이 없어 불자회 창립이 이뤄져 왔다"며 "과천시불자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제 환경

은 것. 창립법회에도 과천시불자연합회가 동참해 창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회원 모집에 들어간 환경부 불자회는 3월 21일 20여 창립준비위원들이 첫모임을 가진데 이어 4월 두번째 모임에서 30일 공식 창립을 선언했다. 첫모임에서는 정연만 총무과장을 창립준비위원장 겸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칙 제정과 사업계획안 마련에 돌입했다. 또 창립을 앞두고 불자회 창립 홍보와 회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부 불자회가 창립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과천시내 타 부처의 불자회 활동을 거울삼아 배운 마음으로 불자회를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회원들이 신심을 다질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불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개인적으로도 참법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수행·봉사 조화이루게 노력

윤불련 반야지부 김태영 지부장



위한 조직 정비를 본격화했다. "기틀이 잡히는 대로 고아원,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겠다"는 김지부장은 "모든 회원들이 욕심이 없고 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며 회원들을 자랑했다.

99년 법어사 소속 법륜회의의 인연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지부장은 7년째 구서동 법사사를 다니며 신심을 다져온 늦깎이 불자. 그러나 초심자의 열정과 넓은 포용력으로 회원들의 신임을 받으며 반야지부의 큰

틀잡히면 고아원·양로원 정기 방문 분위기 조성되면 후원자로 남을것

"일체의 개인적 욕심이나 사견을 배제하고 모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운전불자기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월 부산 용당동 동명불원에서 창립된 한국은불련 부산지역회 반야지부 김태영(72) 초대 지부장은 여생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지부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반야지부는 현재 4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운전자 중 <라>조 불자들로만 구성된 지부로, 회원은 120명. 회비를 내는 회원수가 가장 많아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반야지부는 창립과 함께 '좋은 일'을 하기

힘으로 통한다. "1년만 하고 끝낼 것"이라는 김지부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젊은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되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후원자로 남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번 이나 거절했던 지부장직을 수락하며 자신과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월 1회 동명불련, 법어사 등에서 법회를 열어 참법자가 되는 길을 배워달라"고 당부. "성지순례, 수련회, 봉사활동 등 수행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기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우리 모임에선

강화경찰서 불교회 3일 창립

인간강화경찰서 불교회가 3일 경찰서 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3월말 회원모집에 나서 2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강화경찰서 불교회는 매월 2차례 정기법회 개최와 경승실 마련을 통해 조직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회장 및 임원은 조직체계를 갖출 때까지 선출을 유보했으며, 임시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력인불자회 동학사 참여법회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김영창)는 28일 동학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본사반야회, 삼천포화력 반야회, 울진원자력 문수회 등 17개 소속 지회가 참여하는 이번 법회는 장기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한 참회법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산악인연합회 감사 수련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택)는 27-28일 공주 감사사에서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40여개 단위 산악회원 및 중앙 임원 1백여명이 동참할 이날 법회에서는 우수산악회 운영사례 발표와 환경현안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8일에는 신홍암 산행 및 참배도 마련된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대법회 기념

제1회 소리산 문화축제

사찰을 흔히 절이라고 합니다.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찰을 절이라고 합니다. 108배 수행을 통해 오만과 탐진치에 물든 자신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여 참 성품을 깨칩니다. 108배 수행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정화하고 불국토 건설을 위해 108배 만일회를 결성하고, '108배 만일결사 대법회'를 개최하오니 뜻있는 선지식과 불자들의 수회 동참을 기원합니다.

- 일시: 2002년 5월 5일 (10:00~17:00)
- 제1부 108배 만일결사 대법회 (10:00~12:00)
- 제2부 소리산 문화축제 (14:00~17:00)
- 출연: 김대환 (타악연주) · 하유스님 (법고)
- 무세중 (전위극) · 김명부 (대극)
- 무나미 () · 한승원 (판소리반야심경)
- 이수 (행위극) · 풍물놀이

- 장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정사
- 주최: 108배 만일회
- 문의: ☎ (031) 771-7745, 7038, 6736
- 약도

1. 버스: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요
2. 승용차: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다파크스키장 입구 → 청평방향 7km → 석산주요소 (소향산장) → 법왕정사
3. 행사서비스: 김북지역 ① 일산 캘리포니아호텔 앞 (백마역 7번 출구) (연동구 011-9077-6188)
② 조계사 입구 (우교원 018-373-8707)
③ 5호선 아차산역 앞 (일명철 019-9769-0148)
김남지역 ① 종합운동장 정문 앞 (김명우 011-9799-0908)
② 3호선 수서역 (파리마케팅) 앞 (심재혁 016-230-6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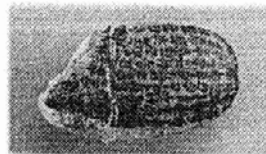
• 출발일시: 5월 5일 07:00

반야심경 米書체 기네스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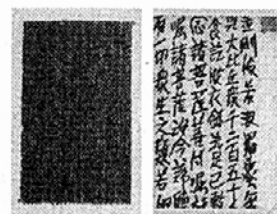
김대환 반야심경 미각전

- 전시기간: 2002년 5월 5일 ~ 5월 19일
- 전시장소: 법왕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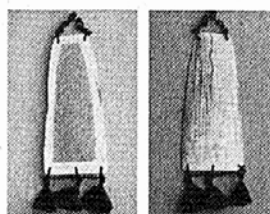
쌀알 한 톨에 반야심경 283자를 미각한 우리 시대의 명인과의 만남!



<쌀 반야심경 283자>



<상자 3cm x 5.5cm 금강경 전문 5322자>



<상자 금강경 전문 5322자>

108배 만일회 회원 모집 안내

108배 만일회는 "절을 닦아주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에게 호응에 맞춰 절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지도 받으며, 108배 수행을 습관화 하므로써 스스로 원하는 인생을 개척하며 마음을 닦는 108배 수행공동체입니다.

회원자격 108배 수행을 체계적으로 원하는 모든 분

회원의 구분 개인, 단체, 사찰

회비 가입비 1만원
월회비 1만원 (연회비 10만원)

회비납부방법 국민은행 220-01-0350-695 예금주: 백백배만일회
새마을금고 3548-09-000783-7

사무국 전화 (031) 771-7745, 7038, 6736 전송 (031) 771-6736

* 동학회원에게는 법당인등을 무료로 밝혀드리며, 김대환 반야심경 미각전 입석 및 지도도, 초신용 금강경을 기념으로 드립니다.